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학교는 버스역과 스카이트레인역이 가까워서 교통에 편리합니다. 저희 대학과 비교했을 때 작은 편인 것 같으나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딱히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지라서 좋았습니다! 학교 안에 카페나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학교 첫날 타국 학생들과 같이 레벨테스트를 봅니다. 레벨테스트는 토익 리스닝과 비슷하나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레벨테스트 후 분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희 반은 한국인이 제일 많았고 일본인 친구들과 대만 친구 1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로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아 캐나다 현지 학생들을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반 수업은 4명이 한 조로 게임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말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은 주마다 주제가 있는데 자신이 어떤 주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냐에 따라 수업에 따른 흥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Vancouver discovery 보조교사(?)랑 걸어서 벤쿠버 명소 돌아다니는 거였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더웠고 페이퍼에 빈칸 채우기와 제출용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개별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걷기 때문에 편한 운동화를 신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지 즐거운 액티비티는 아니었습니다. - Kayaking 카약킹 생각보다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강위라 바람이 많이 부려서 시원합니다. 다만 강위에 어떠한 그늘도 없기에 모자나 긴팔 같은 햇볕 가릴 만한 것들을 챙겨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고 싶다면 방수팩 같은 것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 Museum of Vancouver 재미있게 잘 꾸며놓은 박물관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페이퍼 채우기에 급급했지만 네온사인 같은 것들도 있고 구경할게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설명이 다 영어라는 것과 학생 다같이 가는 것이라 정신이 좀 없다는 것.. - Whistler trip 휘슬러는 나쁘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갔을 때 스모그가 많이 끼서 맑은 하늘은 볼 수 없어서 아쉬웠고 생각보다 곤돌라가 빨라서 되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얇은 긴팔, 긴바지에 겹옷하나 챙겨가 바람이 많이 불 때 입었습니다. (정상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휘슬러 가기까지만 3~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으니 멀미하시는 분들은 멀미약 챙겨 가시면 도움 될 것 같네요.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햇볕이 많이 뜨겁지만 건조해서 그늘에 있거나 바람이 불면 시원합니다. 캐나다 첫 주에는 30도 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유난히 더운 거라고 호스트맘이 그랬습니다. 그때 빼고는 반팔, 긴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 날씨가 좋았고 비는 2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스모그 때문에 하늘이 뿌옇던 적은 많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벤쿠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늦은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안전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알아서 챙겨먹었습니다. 주로 요거트나 시간이 있으면 빵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점심은 제가 집에서 싸가는 것이었는데 샌드위치나 저녁에 가족들이 먹다 남은 것을 챙겨가곤 했습니다. 저녁은 주로 밖에서 사먹었고 싸면 15달러 비싸면 20달러를 넘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사먹는 게 비싸서 저는 쇼핑 거의 안했는데 식비로 돈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집에서 학교까지는 30~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는 1번 갈아타야 됐었고 생각보다 버스가 자주 안다녀서 한번 놓치면 학교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쇼핑		
기념품		
합계	850 CAD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사전에 홈스테이와 연락해서 자신이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면 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기와 수건은 홈스테이에서 제공해줘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외국친구들 선물을 미리 사가서 헤어지기 전에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서로 정도 많이 들고 헤어질 때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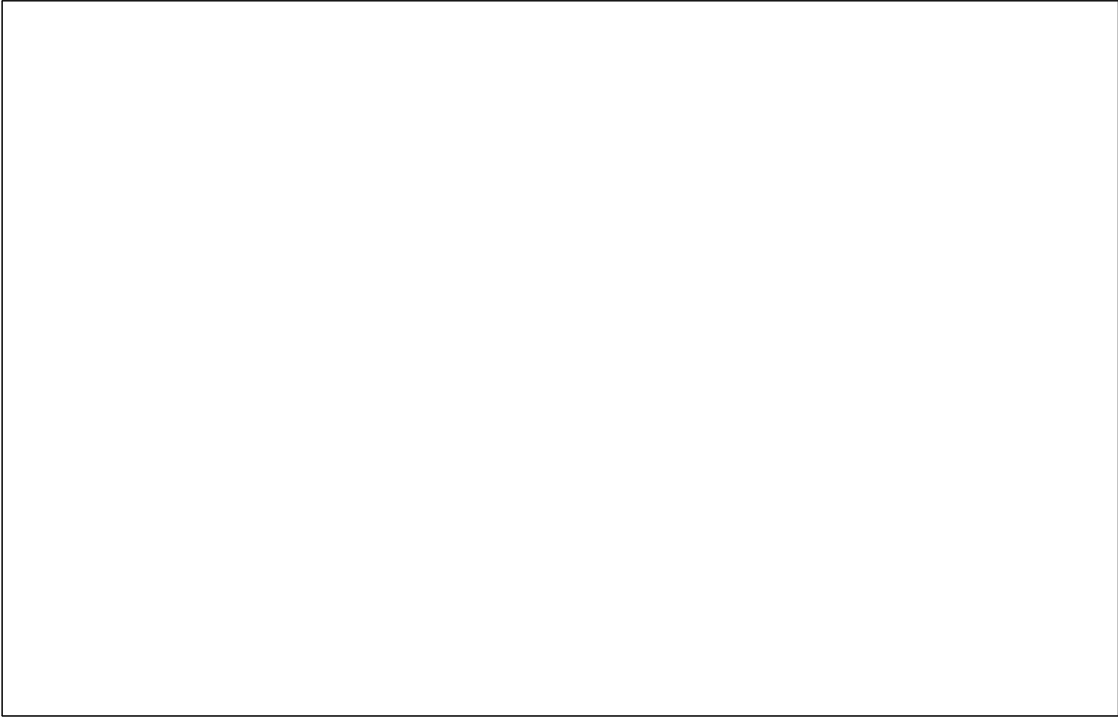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는 영어실력을 눈에 띄게 향상하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영어실력이 월등히 향상되었다기보다는 3주동안 영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살면서 영어와 친숙해진 느낌입니다. 앞으로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조금의 자신감을 얻고 오는 것 같습니다.

밴쿠버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곳에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들 정도로 사람들도 친절하고 날씨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바쁘게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밴쿠버에 못가본 곳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정말 다 예쁘고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녀볼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밴쿠버는 낮에는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할 만큼 치안도 좋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 겁먹고 말을 많이 못할 때도 있었지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서로 웃고 떠들 수 있다는게 정말 신기하고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캐나다에서의 3주가 더 값지고 빛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지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